**관하여**

강 호 연

# 1. 바닥에 관하여

나는 맨바닥에 눕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집 맨바닥에 누울 때마다 엄마와 장모님은 뭐라도 깔고 누우라 학을 떼시곤 한다. 배긴다고. 하지만 그래도 난 맨바닥에 눕는 것이 좋다. 여름엔 여름대로, 겨울엔 겨울대로. 내 살은 전시할 때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한다. 살이 계속 쪄서인지, 여름만 되면 더위를 더 많이 타고 땀이 많아졌다. 에어컨을 강으로 틀고 선풍기를 쐬어도 바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더움이 있다. 그래서 삼복 7월부터 대략 삼개월은 집에 있을 때 그냥 트렁크 차림으로만 있는다. 계속 땀이 나서 옷에서 옥수수 냄새가 난다. 웃옷을 입어봤지 빨래만 는다. 그럴 때 나는 맨바닥에 눕는다. 이미 살짝 땀이 난 등가죽과 바닥이 닿는 순간 시원함에 소스라친다. 한참 동안 누워있는다. 내 체온이 바닥에 전도되어 더 이상의 시원함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 나는 누운 채 고개를 젖혀 등을 바닥에서 띄운다. 땀에 젖은 등가죽과 방바닥이 진공상태가 된 지라, 등을 띄울 때마다 ‘뿡’ 소리가 난다. 참 재밌는 소리다. 연속해서 서너 번을 장난삼아 더해본다. 5살 난 아들이 아빠가 방구를 뀐다며 난리다. 이내 난 실증이 나고 누운 채 시원함을 찾아 자리를 옮긴다. 내가 누워있던 곳에 미적지근한 열과 약간의 미끌거림이 남아 있다. 누워있는 그 순간이 참 좋다. 시원하고 한량스럽다.

허리가 시큰거릴 땐 침대에 눕지 않는다. 보일러를 틀어 뜨끈한 마루바닥에 눕는 것이 제일이다. 바닥은 침대나 쇼파와 같이 내 몸의 굴곡에 일말의 짤이 없다. 꼿꼿하기로 말하자면 대쪽과 같다. 평평하고 단단하기를 도를 넘어 딱딱하다. 내 몸의 뒤는 평평하지 않다. 엉덩이는 구부정하게 튀어나왔고 등과 어깨는 앞으로 굽어있다. 게다가 스마트폰 헤비유저인지라, 목은 거북목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나는 이 꼿꼿하고 뜨거운 바닥을 좋아한다. 내 등에 일말의 짤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평평함에 나의 굴곡진 몸을 맞추길 바란다. 부드럽고 폭신한 쇼파와 침대와는 다르다. 그들은 내 몸의 응석을 모두 받아준다. 그래서 내 몸은 버릇이 없어진다. 그래서 난 일부로 가끔 딱딱한 바닥에 누워 허리를 비명 지르게 한다. 하지만 이내 뜨거운 온기로 내 등의 AT필드를 녹여 내 등인지 방바닥인지하는 경계점을 지워버린다. 마치 바닥은 츤데레같다. 한참을 누워있다보면 구부정한 내 허리가 바닥과 같이 펴진다. 모르겠다 일단 기분은 확실히 펴졌다. 키도 좀 컸으면 좋겠다. 바닥은 대단한 밀당의 고수다. 겨울 밤 늦은 귀가, 어두운 집안 날 가장 먼저 반겨주는 것은 방바닥의 온기이다. 이번 달 난방비가 좀 나올 듯 하다. 걱정이다.

# 2. 샤워에 관하여

샤워기에 물을 틀면 소리가 난다. 쏴-------아. 집안에서 쏴아 하는 소리가 나면 둘 중에 하나이다. 와이프가 샤워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아이러니한 것은 샤워와 설거지는 상극이 너무 좋지 않다. 사랑은 하나인데 받을 사람이 둘과 같다. 곧 태어날 애플이와 강유안에게 벌써부터 걱정이다. 음 엄마는 형을 더 좋아하고, 울 아부지는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다. 그냥 추측이다. 하지만 난 수압과 상관없이 샤워와 설거지에게 부족함 없는 물줄기를 보내려 한다. 우리 와이프는 좀 이상하다. 내가 샤워만 하러 들어가면 설거지를 한다. 음 내가 와이프가 부엌일 할 때 샤워를 하러 가는 것인가,,,,,? 그래 역지사지하자. 와이프도 부엌에서 물 쓰려 하는데 수압이 약하면 얼마나 짜증이날까. 아니다!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나는 벌거 벗었다! 아직 3월인데 아무것도 입지 않고 있단 말이다! 우리집 화장실에는 온돌이 안 깔려있단 말이다! 나는 벌거벗은 채 할아버지 오줌발 같이 약한 샤워기의 온수에 벌거벗은 몸을 의지하여 체온을 겨우 유지한다. 겨우 머리를 적시고 샴푸를 덜어 머리를 감는다. 눈에 샴푸가 들어갈라 눈을 감는다. 얼굴에 샴푸기를 닦으려 수압약한 샤워물을 얼굴에 대려할 때, 갑자기 쏴- 하고 물줄기가 세차게 뿜어져 나온다. 코에 물이 들어갔다.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른다. 물쓰지 말라고! 나의 고함은 부엌에선 들리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그냥 짜증을 풀 곳이 필요해서 지르는 소리이다. 감았던 눈을 뜨고 화장실을 둘러본다. 타일이 만들어낸 가로세로의 그리드가 어렴풋이 보인다. 나는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온수가 뿜어낸 열기가 화장실 안을 뿌옇게 만들었다. 미스트가 내려않은 풍경을 보니 마치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속에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 매번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왜케 거창한지 모르겠다. 샤워를 마치고 수도꼭지를 내린다. 거울을 보니 내가 없다. 기화된 물이 거울을 덮고 있다. 안개는 물이다. 화장실 조명을 올려다보면 무슨 대기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다. 환풍기로 화장실 안을 가득 메운 수증기 알갱이들이 빨려서 올라간다. 에너지는 돌고 도는 것이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하였던가.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를 달리할 뿐이다. 물이 수증기 알갱이로 변하였듯이, 내가 오늘 한 뻘짓을 위해 소모한 에너지도 어디 가지 않았기를 바란다. 분명 다른 형태로 모습을 변화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한다.

#3. 거실등과 환풍기에 관하여

사람에게 빛은 참 중요한 것 같다. 영국유학시절, 자도자도 피곤하고, 힘이 들었다. 무슨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큰 마음을 먹고 되 지도 않는 영어로 GP예약잡고 의사를 방문했다. 피를 뽑고 검사를 해보자고 한다. 당시 우리 와이프가 독박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갑상선 항진증이 생겼었는데 괜히 와이프의 증상이 나와 같아 나도 항진증이 걸린 것은 아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 나의 경우는 항진증이 아닌 저하증이다. 나는 살은 빠지 않았다. 더 쪘다. 피검사 결과, 나는 항진증 혹은 저하증도 아니고, 혈중 비타민 D의 수치가 지나치게 낮아 약을 처방받아야 한다고 했다. 비타민 D는 식품으로 섭취가 불가능하다. 광합성을 해야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겨울을 지내본 사람이 있다면 알 것이다. 유럽의 겨울을 정말 혹독하다. 영국의 경우 더 말할 것도 없다. 일단 일조량자체가 너무 낮은데다 영국은 겨울이 우기여서 주구장창 우중충하고 비가 내리기 일수다. 북부유럽 자살율이 괜히 높은 것이 아니다. 처방받은 약은 4배 고농축 비타민 D였다. 일단 3개월치 꾸준히 먹었는데,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했다. 음 몸이 좋아지기 시작할 즈음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학교에는 스페인출신인 노라가 운영하는 칸틴이 있었다. 그녀가 영국인이 아니라 스페인 출신이어서인지 그럭저럭 맛은 괜찮았다. 하루는 못보던 식물과 이상한 조명이 놓여져 있어서 이게 무엇인가 물었다. 겨울이 힘들어 녹색과 빛을 보려 갖다 논거라는 간단한 설명을 들었다. 인공 데이라잇!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우울한것일까, 우울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것일까. 식물과 인공데이라잇 조명을 구비한 노라가 비타민 4배 농축 알약을 먹는 나보다 더 현명해 보였다. 이 조명을 그냥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싶었다.

바닥과 천장은 만날 수 없는 친구이다. 그 사이에 내가 있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달간 처가에 지냈다. 나와 와이프, 당시 걸음마를 갓 띈 아들은 처가 안방에서 지냈다. 하지만 난 곧 안방에서 쫒겨났다. 나의 코고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아들이 깨서 같이 잠을 잘 수 없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서 난 거실에서 잠을 잤다. 처가 거실에 누워있으면 무엇인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다. 처가는 집이 복층이어서 거실의 천장 높이가 5미터 정도는 되었는데, 누워서 보는 천장이 참 신기했다. 거기 누워있는 나도 좀 신기하고. 아무튼 좀 신기한 상황에서 서글픈 생각도 좀 들고 그랬다. 그때 거실등을 보고 있자면 이상하게 나와 눈높이가 맞아 있는 것이, 내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키가 같아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빛을 마주하고 있는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다. 적어도 올려다 보지 않고 마주보고 있으니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약 한달을 보내고 이사했다. 그냥 그랬다 하는 말이다. 막 자기연민 들고 그런 기억은 아니다. 약간 그러다 말았다.

미세먼지 최악. 숨쉬기가 힘들다. 오랬만에 부모님댁에 가면 공기질이 더 안 좋아짐을 느낀다. 역삼동은 정말 먼지가 많다. 하지만 실내환기를 안하고 공기청정기로 돌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기청정기가 산소발생기는 아니지 않은가! 어쩔 수 없이 환풍기를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실내로 외부공기를 흡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공기를 바깥으로 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흡기구가 있어서 배기가 된다는 것이 함정이다. 결국엔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야 싸이클이 돌고 공기가 순환되는 것이다. 창문열고 환풍기 돌리고 공기청정기도 튼다.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뜬다. 999 유학하고 돌아온 뒤 유난히 파란하늘 보기가 어려워졌다. 중국발 미세먼지? 국가주도 아래 탈원전이 원인인가? 모르겠다. 아주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 물을 사서 마신다고 하면 이상한 시절이 있었다. 내가 아는 생수는 석수가 유일하던 때. 그때 과학상상화에서 그리던 환경적 디스토피아에 종종 등장하던 것이, 대기의 질이 안 좋아져 산소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리의 모습이 있었다. 헤파필터, KN94등급. 모 이런 것 들이, 그냥 예전에 막연하게 상상했던 어두운 미래가 지금의 현실이라 하니 좀 복잡한 심경이다. 놀이터가고 싶은 유안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